



태일정밀(주)
정강환 사장

제 2 회
전자공업대상
수상

대용량 디스크 등 첨단부품 국산화

'93 전자공업대상을 수상한 태일정밀(주) 정강환 사장은 첨단부품 기술개발로 고도의 매출신장을 이룩하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경영인으로 평가돼 올해의 전자공업대상을 수상했다. 정강환 사장은 동사를 지난 '83년에 설립, 국내 산업분야에서 불모지였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자성박막디스크를 '85년에 개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 생산국으로 만들었다.

'86년에는 하드디스크용 헤드를 '88년에는 프린터 헤드를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하여 생산의 70% 이상을 첨단산업국인 미국·일본 등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은 수출전체의 40%를 차지함으로써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했다.

이에 힘입어 '86년에 2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93년에 1,500억원으로 연평균 100% 이상의 경이적인 신장률을 기록하였고 현재 자본금 220억원 종업원 800여명으로 중견수출기업 및 상장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91년 6월 중국 하얼빈에 태일정밀유한공사를 설립, 미국·한국·중국의 3국 생산체제를 갖추어서 UR이후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 산업 발전

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6년 반월에 태일정밀 제1공장, 경남 진주공장, 강원도 춘천공장 등 매년 1개의 공장을 건립한데 이어 '90년에는 중국 하얼빈에 헤드공장을 건립하고 '91년 미국 NMI社를 인수하기도 했다. 동사는 순수매출액의 5% 상당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 컴퓨터 부품일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한편 노트북 PC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대신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와 보자력이 높은 대용량 디스크(1,6000e) 등 핵심첨단부품을 국산화 한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라미네이트 헤드 등 첨단부품개발에 전력투구하며 홈 팩시밀리, 전자안정기, 무선전화기 등 완성품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페라이트 코어 등 7~8가지의 신소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 국산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고도성장 신화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력투구, 신뢰하는 노사관계를 유지, 인간중심의 기업경영을 펼쳐 산업평화에 크게 이바지 해 왔다.

전자산업발전
민간협의회

김덕진 위원장



정보통신, 산·학 협동 추진으로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

전자산업발전민간협의회 김덕진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국내 전자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로 평가돼 협동상을 수상했다.

'63년 대한전자공학회가 창립되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업표준심의위원으로서 한국공업표준(KS)제정에 참여하였고 기능을림픽위원회의 전자직 종장 등을 역임하면서 기능인 양성과 우리나라 기능이 세계를 재패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통신으로 알려진 ISDN의 필수요소 기술인 공통선신호방식에 관해서 지난 10여년간 연구를 수행하여 확고한 기술축적과 더불어 고급두뇌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89년 상공부 산하의 민간단체로 발족한 전자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 같은 숨은 공로가 크게 인정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고도화, 정보화 및 자동화 실현을 위한 많은 자문과 정책건의를 입안하는 등 '90년에는 「전자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전자산업 고도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공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학회 활동을 통한 산·학 협동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힘써왔다. 전자기술

의 국제화, 고도화에 주력 산·학·연·관의 모든 전자기술인의 학회 참여와 기술발전을 촉진시켰다. '90년에는 재직중인 고려대에 정보통신기술공동연구소를 국내 최초로 설립, 소장에 취임, 우리나라 정보산업과 통신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연구체제를 갖추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동연구소는 '90년 23건에 6억원, '91년 39건에 약 20억원, '92년 35건에 약 17억원의 산학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해왔다.

'92년에는 고려대에 Korea Technocomplex를(한국 산·학·연 종합연구단지) 설립,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토록 할 연구센터를 곧 착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김덕진 교수는 10여년 동안 공업발전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기술개발 지원에 깊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중소기업들의 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

산·학·연 공조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산업발전에 더욱 정진하라는 계기로 삼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NTC 서미스터 단체규격 표준화 앞장

전자부품산업협의회 흥기룡 센서분과위원장(계코전자(주) 사장)은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NTC 서미스터 표준화 규격을 제정한 공로로 협동상을 수상했다. 흥기룡 사장은 온도센서의 일종인 NTC(부온도계수) 서미스터의 규격표준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 결정적으로 공헌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가전제품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각종 기계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며 특히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일상생활에서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흥기룡 사장은 NTC 서미스터가 일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국산화 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전력투구 국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격표준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국내에서는 NTC 서미스터에 대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NTC 서미스터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 개발에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한다.

지난 '91년 본회의 전자부품산업협의회 센서분과위원장을 맡게된 흥사장은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규격표준화에 더욱 앞장을 서오

게 된 것이다. 서미스터의 KS규격이 '78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와 산업환경 변화에 규격이 따라와 주지 못해 사실상 같은 제품을 각각 다른 규격으로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고 회고 한다.

한편 '91년에는 망간, 니켈 등 7개 사용원료 및 조합기술 등을 국산화해 이로인해 제47회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NTC 서미스터 제조업체간 동일제품의 상위한 규격들을 정리, 표준규격 제정에 나서 여러 회의를 거쳐 지난해말 NTC 서미스터의 용어, 형태별 분류, 시험방법, 제품별 규격에 대한 단체표준규격을 확정했다. 그리하여 동종업계간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수요업체에게는 양질의 제품공급 및 홍보를 위해 부온도계수 서미스터 표준화 규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동종업계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흥기룡 사장은 표준규격은 전자공업진흥회 단체규격으로 채택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KS규격 개정의 기초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종업계간 기술교류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자부품종합기술
시스템기기사업부

주성철 부장



한국형 CATV 시스템 국산화 주역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형 CATV시스템 개발공로를 인정받아 전자공업 진흥상을 수상한 주성철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시스템기기사업부장은 '92년부터 2년동안 동연구소의 CATV개발사업단장을 역임하면서 상공부 주도의 한국형 CATV시스템 과제에 참여 국산기술력이 전무했던 관련 핵심소프트웨어와 증폭기용 하이브리드 IC, 스크램블러 및 디스크램블러용 IC와 데이터모뎀 등을 개발해 낸 주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성철 부장은 동연구소의 CATV기기 개발사업단에서 CATV기기 국산화 및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으며 국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가입자관리시스템, 망감시 시스템의 조속한 국산화 개발을 제안하여 상공자원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CATV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이것은 앞으로 공동참여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상품화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정부의 '95년 종합유선방송 계획에 따라 국내 18개 CATV 관련업체와 '92년 10월부터 한국형 CATV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

발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산업체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핵심부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도 했다.

주성철 부장은 국내 CATV기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선도함은 물론 상공자원부, 체신부, 공보처 및 산하기관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산·학·연·관 공동연구를 통한 "한국형 CATV 시스템 개발" "핵심부품의 표준화 개발"로 국내 CATV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큰 성과를 얻었다.

이어서 이미 개발된 국산 CATV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CATV 시험평가 및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와 국산시험방송국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CATV 산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국외 시장의 수요 충족과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CATV 기술개발의 발판을 일구어 낸 것이다.